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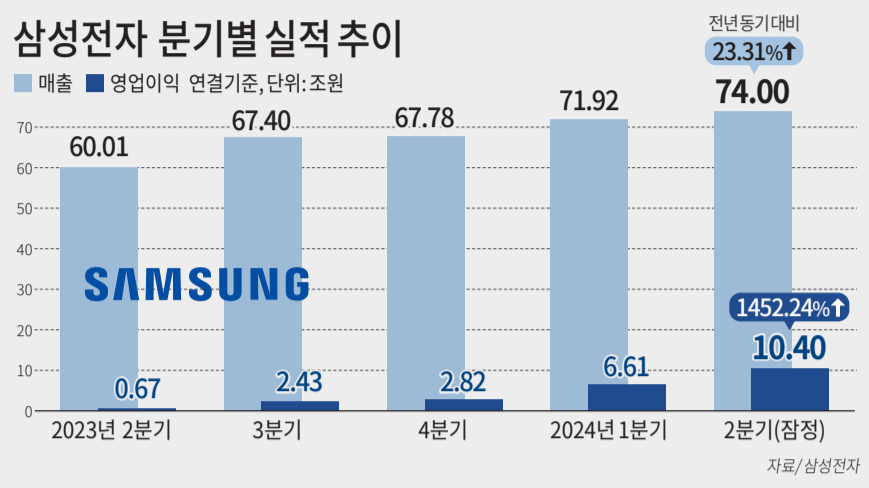
HBM 등 AI 경쟁력 주효... 하반기 10조원대 영업익 청신호

삼성전자 깜짝실적 배경은

2분기 매출 74조, 영업익 10.4조
일부 제품 연말까지 물량 완판
증권가, 주가 목표치 상향조정

삼성전자가 2년 만에 분기 기준으로 10조원 대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삼성전자의 '깜짝실적'은 최근 인공지능(AI) 열풍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며 관련 분야 사업을 영위하는 삼성전자가 수혜를 누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하반기에도 삼성전자의 실적 상승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5일 2분기 잠정실적 발표를 통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0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452.24%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74조원으로 전



년 동기 대비 23.31% 증가했다. 삼성전자가 분기 영업이익이 10조원을 넘은 것은 2022년 3분기(10조8520억원) 이후 7개 분기 만이다.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6조5700억원)도 훌쩍 뛰어넘었다.

이는 특히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앞서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을 8조2288억원으로 전망했지만, 삼성전자는 이보다 약 2조원 많은 영업이

익을 낸 것. 삼성전자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는 AI 열풍으로 메모리 시장이 회복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AI용 서버의 핵심 부품인 D램 가격과 낸드 메모리 가격이 회복된 데 이어 고부가 메모리인 'HBM'의 수요가 급증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HBM은 AI반도체의 구동을 돕는 핵심부품이다. 다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

르면 올해 2분기 전체 D램과 가격은 13~18% 상승했다. D램 시장에서 HBM 매출 비중은 지난해 8.4%에서 올해 말 20.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HBM 시장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있다. 올 상반기 기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53%, 35%로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88%에 달한다. 이 밖에도 낸드 플래시 메모리(SSD) 가격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며 재고자산평가손실 총당금은 1조원 이상 환입됐다.

이에 증권가는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초 2분기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이 4조~5조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호실적으로 DS부문에서만 6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하반기에도 10조원 대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실적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주력 메모리 일부 제품은 수요가 몰리

면서 없어서 못파는 상황이기 때문. 특히 하반기에는 정보기술(IT) 서버 교체가 잦은 시기이기 때문에 완판 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은 11조7900억원, 4분기는 12조7400억원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증권가도 삼성전자의 주가 추경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기존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했다. B NK(9만3000원→10만2000원)와 하나증권(10만6000원→11만7000원)도 목표 주가를 높였다.

NH투자증권 류영호 연구원은 "하반기로 갈수록 반도체 사이클 수혜 강도 상승과 HBM 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그동안 받았던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결국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물량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동사의 매력 증가도 기대 돼 비중 확대를 권고한다"고 전망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비트코인, 4개월만에 최저... "단기조정시 4.7만弗 가능성"

美 금리정책, 獨 매각 등 영향 "상승 사이클 아직 끝나지 않아"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7500만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지난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비트코인 하락세는 마운트곡스 상황과 미 연준의 금리정책,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매각 때문으로 풀이된다.

7일 가상자산 시장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5만780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5일 5만3600달러까지 하락하면서 지난 2월26일 이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내거래소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은 7500만원까지 하락했고, 이후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면서 8200만원까지 상승한 상태다.

비트코인 하락 원인으로는 크게 3가지를 꼽고 있다.

지난 2014년 해킹 피해로 파산한 당시 세계 1위 가상화폐거래소 마운트곡스(마곡)가 상황을 시작했다.

마운트곡스 파산 관재인인 고바야시 노부아키는 지난 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다수의 지정된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일부 채권자들에게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를 상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상황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14만2000개 약 90억달러(약 12조)의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상환 받은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설 경우 기존 투자자들 역시 매도세로 전환돼 대규모 급락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사록에서 매과적(통화 긴축정책 선호) 기조가 유지된 것도 비트코인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다.

6월 FOMC 의사록에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지만 2% 목표를 향해 지

속 가능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고 적혔다. 즉, 추가 정보가 나올 때까지 금리를 낮추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당분간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비트코인의 경우 주식과 같이 위험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영향을 직격탄으로 받게 된다.

독일 정부도 지난달에 이어 비트코인을 시장에 내다 팔았다.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 아카에 따르면 지난 4일 독일 정부 소유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지갑(bc1q~)에서 비트스탬프,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으로 각각 비트코인 500개, 400개, 400개가 전송됐다. 총

1040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독일 정부는 지난달 27일까지도 비트코인 3641개(3000억원 규모)를 코인베이스 등 글로벌 대형 거래소로 전송한 바 있다. 가상자산을 거래소를 옮기는 것은 잠재적 매도 신호로 간주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를 보고 연일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주기영 크립토크트 대표 X(구 트위터)를 통해 "단기 조정은 최대 4만7000달러까지 열려 있을 수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승 사이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물 투자자라면 내년 초순분까지 보유하는 것을 추천하며, 선물이나 레버리지 투자를 하기에 적절한 시기는 아닌 것 같다"며 "매수세가 강력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트레이딩을 쉬는 걸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이승용 기자 lsy2665@

한 번 군민은 영원한 군민 www.yyg.go.kr

[평생토록!]

요람에서 노후까지~
1인당 최대 **1억 4,405만원** 지원!

환영받으며 태어나
아낌없이 지원받으며
건강하게 익어갑니다
한 번 군민은
영원한 군민이라는
마음으로 평생 함께하는
영양군
누구나 행복한
초고령사회 만들기
앞장서고 있습니다.

영양군 생애주기별 38대 지원시스템

- 출산축하용품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 공동육아나눔터
- 부모급여·보육비 지원
- 둘째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교육급여 지원
- 교육급여
- 위생용품지원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 대학생 장학금 지원
- 향토생활관·영양학사 운영
- 마음건강 지원
- 청년월세 특별지원
- 창업 지원
- 근로자 지원
- 전입축하금
- 주택임차료 지원
- 주소이전 유공장려금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결혼장려금 지원
- 결혼비용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고위험산모 의료비 지원
- 임신제·출분제 지원
- 군민안전보험
- 각종 진료비 감면
- 농사 시설 확충 지원
- 농기계 구입 지원
- 주택수리비 지원
-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대상포진 무료 예방 접종
- 독감 무료 예방 접종
- 건강검진비 지원
- 치매 조기검진 지원
- 치매치료비 지원
- 군민안전보험
- 생활민원바로처리반